

전북-중국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성료

더 활발한 한-중 문화교류의 토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경운)은 최근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단체가 군산-석도 간 여객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중 청소년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북의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단체가 군산-석도 간 여객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교류 마지막 날에 진행된 문화교류 참여 증서 수여식을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산-석도 간 여객선 통한 방문, 300여 명 참여

이번 문화 교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300여명의 중국 청소년들이 전북을 찾았다.

중국 청소년들은 군산-석도 간 여객선을 통해 입항했으며, 재단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환대 행사를 마련했다.

환대 행사에서는 문화교류단체 대표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도내 청년 예술단체의 공연이 펼쳐져 중국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환영을 선사했다.

▲태권도 엑스포부터 전북119안전체험관까지... 전북만의 문화체험

재단은 중국 청소년들을 위해 전주한옥마을 투어 및 한복 체험,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관람, 전북119안전체험관 방문 등 전북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서는 한국의 대표 무술인 태권도를 직접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는 화재연기탈출체험, 지진체험, 교통안전 체험 등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청소년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큰 호응을 보였다.



한옥마을 투어·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관람 등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자치도 글로벌 위상 높일 것"

이처럼 전북에서의 다양한 문화 체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 교류 참여 증서 수여, 양국 간 교류 다짐

이번 교류의 마지막 날에는 문화교류 참여 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중국 청소년들은 전북에서의 문화 체험을



통해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이번 방문을 주관한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단체의 대표 채법송(CUI FANG SONG, 崔范松)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따뜻한 환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 1. 군산항 환대행사
- 2. 전북119안전체험관 방문
- 3. 한국어 교육
- 4. 태권도 체험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요한 발걸음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교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다양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적 자산을 중국 청소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더욱 활발한 한중 문화교류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회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여성가족재단(회장 전정희)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SNS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캠페인 이미지 또는 인증샷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으로부터 지목받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ECO융합성유연연구원 서민강 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을 지목했다.

전정희 회장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아이들이 아픔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 환경 개선 및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지역맞춤형 AI·SW 전문강사 양성 교육생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전북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신기술 분야 교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으로 '역량기반 AI·SW(코딩)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선정되었으며,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지역핵심 산업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테크노파크, 연구기관인 플라이코딩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내 관련분야 구직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총 128시간 운영되는 AI·SW 전문강사 양성 훈련과정이다.

교육기간은 9월 13일에서 11월 1일까지이며 교육내용은 SW코딩 기초교육, AI(인공지능)블록코딩 기본교육, 메타버스 VR코딩교육, SW코딩 교수학습방법, 코딩강의 현장실습(14시간) 등으로 총 28일(128시간)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훈련생에게는 '코딩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 관련 기업 취업 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훈련비는 무료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구직여성 및 이·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여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면접을 통해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까지이며 전북여성가족재단 취업지원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전국민 대상 관광 사진 공모

찬란한 역사 문화와 청정 생태 자연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관광 사진 공모전 접수는 10월1~3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 애호가라면 전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 분야 또한 자유로운 주제로 고창의 자연, 관광지, 축제를 비롯한 고창군 관광과 관련된 모든 미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가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총 61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금상(200만원/1명), 은상(100만원/2명), 동상(50만원/3명), 가작(20만원/5명), 입선(10만원/50명)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문화재단, '시 창작교실' 운영
27일까지 선착순... 내달 4일 개강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 창작교실'의 수강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동문길 인문학 클래스'의 일환으로, 평소 시 창작에 관심이 많거나 시인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작품을 엮어 문집까지 출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강좌는 9월 4일부터 8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공유화음실(동문길 60)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수업을 진행할 강사로는 전북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태건 시인으로, 불꽃문학상 수상작인 시집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의 저자이며, 지역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다수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시 창작교실 수강과 시집 발간을 희망자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간단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perhe21@jfc.or.kr)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문화재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시설 문화공간화 상호교류 '맞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전주 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소영식)와 지난 12일 상호교류 및 협력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거점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근린 향유공간을 조성해 15분 문화권 구축 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첫 과일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인 '문화공간화 프로젝트'로, 공공시설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고려 상감청자 발상지 부안 집중 홍보 나섰다

부안군, 2024 아시아 청자 워크숍·도에 초대전 참가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발생지 부안의 청자가 중국 절강성 상위구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청자 워크숍 및 초대전시에 초청돼 비색청자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절강성 소흥시 상위구가 주최하고 상위도자고등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이며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 청자를 주제로 한국·중국·일본에서 초청된 도예작가들이 청자제작 기법을 시연하고 각 나라의 다양한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청자작품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행사이다.

또 한국에서 초청된 부안관요 도예가 김문식·송승호 작가와 부안도예가협회 윤성식·김보정 작가의 청자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형태의 청자를 설명하는 워크숍과 청자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초청된 일본의 청자도예가들은 고려시대 부안청자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 이어져 온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서 고다이아키



부안군이 중국 절강성 상위구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청자 워크숍 및 초대전시에 초청돼 비색청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요장의 도예가 4명이 참석해 한국에서 건너간 일본의 청자성형과 기법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큰 관심을 받았다.

관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발생지 부안과 과거 신비로

운 비색으로 천하제일의 평가를 받은 부안상감청자의 특색 있고 독창적인 도자문화를 알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두 나라가 청자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부스 참여업체 모집

전통문화전당, 내달 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이 '2024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에 참가할 한지 상품 판매 및 체험 부스 참여업체를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2024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한국전통문화

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는 더 커진 규모로 시민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자 지역 한지업체들과 함께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품 판매 및 체험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상품 판매 부스는 한지 소재로 제작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 업체 또는 개인 이면 신청할 수 있고, 체험 부스는 한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전당은 부스 참여업체에게 운영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의 집기류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 제공과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오는 20일에는 체험 부스 관련 사전설명회를 진행해 지원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c.or.kr) 또는 전주한지문화축제 누리집(jhanji.or.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한지산업대전TF팀(063-281-15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